

청정기술학회 혁신 및 운영방안에 대한 소견서

한국청정기술학회는 전·현직 회장님과 회원분들 그리고 임직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날로 발전하여 2025년 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수석부회장 선출은 “30년의 성장, 그리고 30년의 도약”을 기념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수석부회장이 선출되면 무엇보다 영광으로 생각함과 동시에 다음 세대의 기초를 세우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회 30주년을 기념하여 청정기술분야를 선도해 오셨던 전문가분들과 함께 “청정기술을 이끌 다음 세대를 위한 기초”를 세우고자 합니다.

- 선·후배 그리고 글로벌 연구자 등 최대 인원이 참가하는 성공적 30주년 학술교류를 이뤄내고, 2025년 학회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그 바탕이 되는 Vision 2030을 수립하여 다음 세대와 함께 힘차게 도약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회의 존재는 학술지 그리고 학술대회 규모가 말해주고 있어 “확장성과 국제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양한 편집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 학술지 발전 역량에 집중 (학술지의 양과 질을 동시 Up!)
- 국제학술대회(International Symposium, Internation Conference 등) 개최
- 부문위원회 확대(국제협력위원회, AI기반 공정 최적화 위원회 등)

셋째, 학술대회 활성화를 위한 “젊은 연구자 및 산업체” 학회 참여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 신진 연구자 학회 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신진 연구자 중심 위원회 발족 공감 학회 운영)
- 학술대회 학생과 기업 참여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개발 (선·후배, 산·학·연 네트워킹 강화)

넷째, 학회 운영시스템 체계화 및 수익사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운영시스템 보완 및 체계화
- 학회 운영 프로세스를 체계화하여 정보화 시스템에 반영 및 회원들을 위한 서비스 질 개선
- 학회가 학술 활동을 위한 교류의 장일 뿐 아니라 새로운 용역, 연구개발, 교육 사업 활동 등을 통한 수익사업 준비 진행 (수익사업 모델은 향후 학회의 발전과 회원들 유대감 강화 기대)

앞으로도 청정기술학회가 동료 회원분들과 더욱 협력하는 교류의 장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회원분들께 희망과 꿈을 키워줄 수 있는 학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청정기술학회
제22대 수석부회장 후보자 이만식 올림